

“투기자본 납품 막아 현대차라인 세우겠다”

한국게이츠 폐쇄, 현대차 방조해야 가능 ... 지회, “정몽구, 문재인 정부가 막아라”



국제 투기자본 블랙스톤이 일방 통보한 정리해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원청으로서 책임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7월 29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한국게이츠 일방 폐업 철회, 중국생산품 대체 납품 반대, 한국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대자동차 책임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확

대 간부들이 참가해 한국게이츠지회 투쟁에 힘을 실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에 ▲미국 게이츠가 중국에서 생산해 한국게이츠 판매법인 GUKC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품질 보증 요구 ▲국내공장 폐쇄와 중국산 수입 부품 대체에 대한 부정 여론 직시 ▲투기자본 이윤을 위한 먹튀와 대량해고에 대한 완성차업체의 사회적 책임 등을 촉구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공장 폐쇄를 방조한 채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는다면 불매운동은 물론 이를 사회 문제화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블랙스톤과 사측은 한국 공장 폐쇄를 일방 결정하고 노동자 147명을 해고하면서, 중국산 부품 수입을 담당하는 GUKC(게이트유토타코리아)의 자동차부품 생산 엔지니어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대차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내수 시장 활성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자동차 한 대에 최대 143만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세금 1조 원이 들어갔고 현대차그룹은 8천억 원의 혜택을 입었다” 라고 지적했다.

김용화 수석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은 현대차그룹이 부품사 국내공장을 폐쇄를 방관하고, 원가절감을 한다며 값싼 중국산 제품을 공급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라고 성토했다. 김 수석은 “요즘 현대차그룹의 신차들이 품질 논란에 휩싸여 있다. 현대차그룹은 원가경영을 할지 품질경영을 할지 잘 선택하라” 라고 경고했다.

“현대차, 원가경영이나 품질경영이나, 선택하라”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변호사 연대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도 국내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보면 갖가지 편의와 혜택이 쓰여있지만, 외투기업이 국내 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한

구절도 없다. 외투기업의 국내 노동자에 대한 책임에 명시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국계이츠는 달성공단에 입주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고, 고용유지 대가로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순이익이 1,041억 원으로 연평균 50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순이익의 90% 이상을 해외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윤종화 노조 대구지부장은 투쟁사에서 “한국계이츠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현대차그룹도 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노동자 147명 중 120명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떠나야 했다. 바로 투기자본의 먹튀와 이를 방조한 현대차그룹 때문이다” 라고 분노했다.

윤종화 지부장은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한국계이츠 조합원들과 하나의 운명, 하나의 조직으로 투쟁해 현대차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 라고 결의를 높였다.

채봉석 노조 한국계이츠 지회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블랙스톤은 현대차그룹의 동의와 방조 속에 한국공장 폐쇄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채봉석 지회장은 “현대차그룹이 블랙스톤의 중국산 부품 공급을 승인하

지 않았다면 한국계이츠 공장은 폐쇄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한국계이츠 공장 폐쇄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비판했다.

채봉석 지회장은 “사측은 공장 노동자를 다 자르면서 판매법인 GUKC의 경력직 인력을 20여 명 정도 뽑고 있다. 중국산 부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현대차는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묵인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채봉석 지회장은 “지회는 투기자본의 물량 납품을 묵숨 걸고 막아 현대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문재인 정부가 나서 한국계이츠 사태를 해결하라” 라고 촉구했다.

노조 대구지부와 지회는 회사가 통보한 정리해고일인 7월 31일 한국계이츠 공장 마당에서 ‘흑자 폐업, 집단해고 분쇄, 한국계이츠 투쟁 승리를 위한 1박 2일 투쟁 문화제’ 를 열 예정이다.

계이츠는 지난 2004년 GUKC라는 판매법인을 만들었다. 한국계이츠는 GUKC를 통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에 납품했다. 유통만 담당하는 GUKC가 영업이익 대부분을 가져갔고, 줄어든 한국계이츠의 이익만큼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는 나빠졌다.

“대법원, 유성기업 손해소송 파기 환송하라”

노조파괴 유죄판결에도 사측 손해소송 취하 안 해 ... 이자까지 21억 원 넘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이 손해배상소송(손배소송)을 노조파괴 목적으로 악용했다며, 대법원에 2심을 무효 취지로 파기 환송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을 검토 중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유성기업 손해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권수정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5월 18일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유성기업은 이명박 정부,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질렀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건과 여러 재판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유성기업 손해소송은 말 그대로 노조파괴 수단이자 노동자 조롱”이라며 “1, 2심 재판부가 사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현재 지연이자가 매일 몇십만 원씩 불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 사측의 법 제도 악용을 멈춰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2011년 5월 11일 ‘불법파업 단기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두 곳 지회가 쟁의조정을 거쳐 파업에 들어가면 지회·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라고 사측에 안내했다.

유성기업은 위법한 쟁의행위라며 2011년 10월 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은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업무방해·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손해 금액과 위자

료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가량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노동권 침해 법 제도 악용 막아라”

1, 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 중 12억여 원을 인정했다. 2015년 12월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인정액으로 10억 원을 판결했다. 금액은 줄었으나 노동자 측의 책임은 60%로 상향됐다. 자연이자는 연 20%에 달한다. 2심 선고 이후 매일 자연이자만 55만 원 가까이 발생해 2020년 7월 현재 손해배상 금액은 21억 원을 넘었다.

유성기업 사측 손배소송에 대한 2015년 2심 판결 이후 법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련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다. 법원은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임원,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 현대자동차 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유시영 회장은 부당노동행위와 배임·횡령(노조파괴에 회삿돈 사용)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정훈 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사법부가 이미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잘 알고 있다. 대법원은 유시영 회장의 실형을 확정했다”라며



“대법원이 쟁점검토를 하고 있다니 조만간 손배소송 선고기일이 잡힐 듯하다. 대법원은 무효 취지 파기 환송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를 제대로 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훈 지회장은 “대법원이 사측 손배소송을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를 인정한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사측은 손배소송을 회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사측은 지난해 10월 노사 교섭에서 손배 철회를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어 노조가 임금·노동조건 후퇴를 받아들여야 소송 철회가 가능하다며 우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대법원은 현재 유성기업 사측 태도를 똑바로 살펴보기 바란다”라

고 주문했다.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교섭을 통해 사측의 노조파괴를 끝내보려고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했다”라며 “노조파괴 수단인 손배소송을 사측이 스스로 취하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 법원도 조정을 권했으나 유성기업 사측은 모든 여지를 건어찼다”라고 비판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사측이 여름휴가 이후 8월 집중 교섭을 벌여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노조에 알려왔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사측이 노동자의 숨통을 조여왔다. 사측이 향후 교섭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지켜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유성기업 두 지회는 대법원에 노동조합의 입장과 법리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